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⑭

안래홍(雁來紅), 장수와 회춘을 향한 바람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진시황(秦始皇: BC 259~210)은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하기 위해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명을 당시의 방사(方士, 마술사) 서복(徐福)과 함께 제주도에 보냈다 한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다.



석운 정은영(石雲鄭恩泳)의 '안래홍'

진시황의 의관들은 '수은(水銀)'을 처방했는데 진시황은 영생불멸의 물질로 오해하고 사용했다. 수은은 소량을 섭취 할 때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져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장생약으로 믿게 됐던 것이다.

그 당시 '수은'은 아주 귀해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에 속하는 물질이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전국의 수은을 모아,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수은을 먹고 얼굴에 발랐다. 사료(史料)에 의하면 결국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코가 썩고 정신병이 생겨 폭정을 거듭하다 마침내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으로 유명했던 난설헌(蘭雪軒) 허씨가 남긴 210편의 시(詩)중, 절반 정도 되는 87편이 불로장생의 세계에서 사는 신선들의 삶을 그린 유선시(遊仙詩)이다. 그 중 선계(仙界)를 바라는 노래라는 의미인 망선요(望仙謠)의 일부를 읽어보자.

瓊花風軟飛青鳥(경화풍연비정조) 옥구슬 꽃 바람 타고 청조가 날자 王母麟車向蓬島(왕모린거향봉도) 서왕모 기린수레 봉래를 향해 가네. 蘭旌藥帳白鳳駕(난정약백봉가) 목란 깃발 꽃술 배자 흰 봉황 수레타고 笑倚紅欄拾瑤草(소이홍난습요초) 난간에 기대 웃고 요초를 줍는구나.

이렇듯, 장생불사의 꿈은 고금을 통해 면면히 이어진다. 지금도 종종 신문지상이나 마스크를 통해서 장생불사를 향한 현대인들의 치열한 욕망을 볼 수 있다. 사슴뿔을 이용한 한약재의 고급화라든지 웅담이나 살아있는 곰의 피를 채집한 다든지 초봄에 개구리들을 멸종시킨다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구렁이들의 형편을 보면 그렇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미술품경매에 노란 바탕에 붉은 안래홍을 화면 가득히 그린 석운(石雲) 정은영(鄭恩泳, 나비그림으로 유명한 구한말 석하(石下) 정진철(鄭鎭澈)의 아들의 유려한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그림을 만나 한 참을 들여다보다 만감(萬感)과 만상(萬想)을 느꼈다.

불사와 회춘을 향한 집요한 인간의 욕망과 바람 치는 여름, 햇빛 졸아드는 가을을 지나 눈보라치는 겨울에는 흔적도 없을 색비름(안래홍)

색비름이라 불리는 안래홍 봄부터 늦가을까지 빨간잎 유지 먹으면 몸 가벼워져

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또 그린 선현들의 의중을 바라보면서 헛된 인간의 욕망과 그 근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색비름은 봄에 빨간 잎이 나와서 늦가을 기러기가 날아올 때까지 빨간 색을 유지한다고 해서 안래홍(雁來紅)이라고 불린다.

약재로도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해열과 이질, 치질, 변비 등에도 쓰고, 식적(食積)이라 불리는 소화기 장애에 구하기 힘든 기러기 내장의 각질내벽 대신에 사용했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만병을 퇴치하는 기능도 있다고 전한다.

그림에서는 은둔해서 사는 선비를 나타내는 국화와 함께 그려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식물이 장수와 회춘을 의미하게 하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명전에서 찾아보면 좋을 듯하다.

기러기가 날아 내리는 듯한 모양을 한 이 화초의 이름 중에서 홍(紅)자와 안(雁)자를 다시 합해서 홍안(紅顔)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홍안의 미소년이라는 말에서 읽을 수 있듯이 젊어서 얼굴의 혈색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홍안은 오래가지 못한다. 팔만사천가지 병이 모이고, 내 것이 아닌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언제 어디서 기별 없이 아찔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행과 업장소멸만이 밝은 내세를 기약할 수 있는 법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⑦



탑(塔)

'생각'이 시작되던 날부터 탑들이 생겼다. '생각'은 염원이 되었고 염원이 탑을 쌓았다. 씨앗이 날려 숲이 붙어나는 것처럼 사바(娑婆)엔 탑이 늘어났다. 아득한 세월로부터 건너온 탑들은 세월이 사라지면서 남긴 꿈이었다. 탑을 쌓은 염원들이 꾸던 영원한 꿈이다.

도량에 들어 아득한 시절을 품은 석탑 앞에 서면 그 영원한 꿈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엔 기억할 수 없는 나의 꿈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 아득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석탑은 절이 들어서기 전부터 서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저 멀리 절을 잃고 외로이 선 석탑 앞에 다시 절이 서고 누군가 석탑 앞에서 아득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석탑은 절이 서기 전부터 그 곳에 있었고, '생각'이 시작되던 날부터 석탑은 거기 있었다.

내가 있기 전부터 내 안에 서있는 나를 보고 싶던 어느 날, 무너지지 않는 석탑처럼 서있고 싶던 어느 여름날, 서산 보원사에서 석탑을 바라보며.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⑩ 조선 편양언기 전사의 '언 스님이 궤는 단주로써 지음[彦師貫短珠韻]'

법계연기가 손바닥 안에 있다

半尺紅絲錯貫珠 (반척홍사착관주) 重重剎海掌中收 (중중찰해장중수) 傍人且莫分寶主 (방인차막분빈주) 一相參自點頭 (일상참자점두) 얼마 안 되는 붉은 실로 염주를 다듬어 꿰나니 하 많은 세계가 손바닥 안에 거두어지네. 여보게. 또 손님과 주인 나누지 말라. 하나 둘 서로 섞여 스스로 알아차리네.

편양언기(鞭羊彦機:1581~1644) 스님은 참다운 도인의 경지란 "공이 색임을 알면 공무(空無)에 막히지 않고 색이 공임을 알면 유상(有相)에 막히지 않으며,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며 공도 되고 색도 됨을 알면 중도(中道)에도 머물지 않은 삼관(三觀)을 꿰고 나간 것"이라고 깨달음의 경지를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깨달음에 기초해 3여 년 동안 보임(保任)으로 양치기를 한다거나 1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숯장

수, 물장수 노릇을 하는 등 승속무애(僧俗無碍)한 삶을 살았다. 이 시는 스님의 이러한 승속이 무애한 불이(不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스님은 단주를 궤는 언 스님을 보면서 종종 무진한 화장세계가 손바닥 안에 있음을 본다. 단주를 인드라 망에 비유한 것이다. 제석전에는 그 공전을 장엄하는 보배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마다 보배구슬이 달려 있고 그 구슬 한 개 한 개 마다에는 일체보주

의 영상이 나타나 서로 서로 중중무진하게 벌려 있다 한다. 이 원융무애하고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법계연기를 단주가 손바닥 안에 있다는 비유로 표현했다.

또한 "마음과 경계가 일체가 되면 이것이 불이(不二)이며 불이 안에는 법부와 성인, 선악의 차별이 없다"고 한 스님의 뜻이 주객이 없는 무분별의 세계로, 자신의 안에 모든 부처와 세계가 있음을 스스로 아는 자리로 드러나고 있다.

수행자의 손에서 일상적으로 굴러지는 단주에서 스님은 원융 무애한 법계연기를 보았던 것이며 단주로써 그러한 세계를 펼쳐보였다. 또 지금 우리들이 굴리는 단주에서 단주가 나이고 내가 단주인 경지를 맞보기를 원했는 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Advertisement for the book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Grow Your Own Flower) by Jeongchanju. The ad features a large headline, a photograph of the author and a Buddhist nun, and a book cover image. The text promotes the book as a guide to finding happiness through Buddhist practice.